

세계 군복 위장 패턴에 관한 연구

Study of Camouflage Pattern on World Military Uniforms

주저자

윤 을 요 Yun, Eul-yo,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학과 조교수 | Assistant Professor of Dongduk Women's University
yoyo5@ongduk.ac.kr

투고일	2019.09.10	심사일	2019.10.25	게재확정일	2019.10.28
-----	------------	-----	------------	-------	------------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 (2017년도)에 의한 학술비 지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목 차

1. 서론
 - 1.1. 연구목적 및 배경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전투복의 정의와 역사
 - 2.2. 위장 패턴의 개요와 역사
 3. 세계 각 국 전투복의 지역별 위장 패턴
 - 3.1. 지역별 전투복 위장 패턴의 실제
 - 3.2. 지역별 전투복 위장 패턴 변화의 경향
 4. 결론
- 참고문헌

Keyword

군, 위장 패턴, 전투복
Military, Camouflage, Combat uniforms

Abstract

Military camouflage a kind of deceptive tool used for concealment purpose for the soldier's life and safety. Today, camouflage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combat uniform design, and the world makes efforts to develop the camouflage pattern suitable for the battlefield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This study aimed first to investigate the cases of the camouflage pattern of world combat uniforms and second to understand the trend of change appearing in the today's world camouflage pattern with the world's top 30 military pow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amouflage pattern of world combat uniforms changes the trend of pixelation and digital patterning. Second, it changes with typical and contextual similarities. Third, it changes focusing on teleological functionality, which pays attention to concealment/camouflage. Fourth, it changes, going through the design naturalization suitable for the domestic environment. Fifth, it changes with temporal and historical relevance. Sixth, each country changes and develops it, pursuing its own distinctiveness.

논문요약

밀리터리 카무플라주는 은폐와 위장을 목적으로 군인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마련된 일종의 기만 도구이다. 오늘날 카무플라주 패턴은 전투복 디자인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세계 각 국은 21세기 전장 환경에 적합한 저마다의 위장 패턴 전투복 개발에 힘쓰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 30위권 내의 군사 강국을 대상으로 첫째 세계 전투복 위장 패턴에 관한 사례를 연구하고, 둘째, 오늘날 세계 위장 패턴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세계 전투복 위장 패턴은 픽셀화, 디지털 패턴화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둘째, 유형적, 맥락적 유사성을 띄고 변화하고, 셋째, 은폐·위장에 주목한 합목적 기능성에 중심을 두고 변화하고, 넷째, 자국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토착화의 단계를 거치며 변화하고, 다섯째, 시대적, 역사적 관련성을 지니고 변화하며 여섯째, 자국만의 차별성을 추구하며 변화 발전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최근 패션계에서 활용되는 위장 패턴(camouflage)은 독특한 분위기의 연출, 참신한 스타일의 표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고 있다. 실제로 위장 패턴은 눈속임을 위한 문양으로 군복에서만 활용되어졌으나 밀리터리룩과 젠더리스룩이 부상할 때 동반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최근 의류에서부터 생활소품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위장 패턴은 과거 남성성과 전투, 군대와 같이 강력함으로 대변되던 상징성에 색다른 요소를 접목하여 스타일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디자인 활용도에 비하여 위장 패턴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또한 전투복 첨단화에 발맞춘 위장 패턴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세계 각국의 전투복 패턴 디자인의 추이 파악은 향후 국내 위장 패턴디자인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트렌드와 향후 국내 전투복 위장 패턴 디자인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전투복 위장 패턴디자인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 위장 패턴 변화의 특징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현실적으로 위장 패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이번 연구가 향후 위장 패턴 제작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둔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전투복의 위장 패턴은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일종의 보호색과 같은 문양으로 위장과 은폐의 기능을 군복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군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서 세계 각국은 21세기 미래전장 환경에 부응한 저마다의 위장 패턴 전투복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세계 위

장 패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세계 30위(군사력 순위)권¹⁾ 내에 있는 육군 전투복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은 첫째, 전투복과 위장 패턴에 관한 개요 및 역사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투복 위장 패턴 디자인에 대한 실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며, 셋째, 세계 전투복 위장 패턴의 변화발전의 경향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세계 각국의 군복 위장 패턴과 관련된 전문서적 및 국내외 학술 연구자료, 정기간행물, 군 관련 전문기관의 보도 자료, 동영상자료 그 외에 온, 오프라인에 제시된 세계 각국의 위장 패턴관련 조사 자료를 기초로 연구에 필요한 다수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투복의 정의와 역사

군복은 군인들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기본적으로 피아와 단체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에 의미가 크며, 크게 정복과 전투복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행사용 예복이나 정복, 행정 근무자 및 함정 근무자용 피복이나 약식 정복 역할을 하는 근무복, 육상전투 위주의 전투복으로 분화될 수 있다.

전투복은 실전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착용하는 의복으로 개체보호의 목적성과 기능성을 수반한 복장으로 군인 개인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투능력 상승효과에 주목하며 발전해 왔다.²⁾

군복의 시작은 군인이라는 직업이 생겨난 이후이며, 이는 고대에도 피아식별에 유효한 통일된 형태의 복장이 존재하였음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다만 당시의 군복은 각기 다른 생활방식의 두 군대가 그들의 일상복을 착용함으로써 서로를 구분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 최초

1) 세계 군사력 순위: 미국-러시아-중국-인도-프랑스-영국-대한민국-일본-터키-독일 (1~10위) / 이탈리아-이집트-이란-브라질-인도네시아-이스라엘-파키스탄-북한-스페인-베트남 (11~20위) / 호주-폴란드-알제리-대만-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태국-그리스-우크라이나-체코 (21~30위)

2)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D%88%AC%EB%B3%B5>

의 통일된 군용 복장에 관한 기록은 한니발 바르카 장군의 에스파냐인 보병들이 착용한 흰색에 붉은색 태두리가 있는 의상과 고대 스파르타 군인들의 붉은 옷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후, 로마제국은 본격적으로 군용 장비의 표준화를 실시했으며, 군복의 기준도 이 시기 마련되었다.

중세의 서유럽에선 군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으며, 대부분 육상의 군인들이 지방 영주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해당 영주 가문의 문장을 방패에 그리거나 서코트(surcote)에 박음질하는 것으로 피아를 구분했다. 중세말기, 원정 시에는 비교적 통일된 복장의 표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원정이 끝나면 바뀌기도 하는 단기적인 피아구분용의 복식이 착용되었다.

제복으로서의 군복이 나타난 것은 근대 육군의 전열보병 시대로 이 시대 군복의 역할은 멋지고 멀리서도 식별이 잘 되는 튀는 의상으로서 현대의 전투복의 의미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군인 개인의 화력이 제한적이고 약해 엄폐의 필요성이 낮았고, 무연화약 개발 이전에 흑색화약은 폭발 시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여 화약 연기가 자욱한 전장에서는 피아 식별의 용이성이 중요하였다. 또한 화려한 복장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당시의 전투복은 최대한 눈에 잘 띄는 원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무기의 기술향상과 군대를 감당할 재원의 부족으로 이후에는 착용자가 군인이라는 것만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복으로 간소화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8세기 미국 독립전쟁 시절의 대륙 육군 제복과 19세기 남북전쟁 시절의 북군 육군 제복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고화력의 대포,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화기들이 등장하면서 보병 단위의 전투능력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에 근대시대의 원색 군복을 입고 지상전에 나서는 것은 표적지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과적으로 화려한 형태를 자랑하던 전통적인 군복은 제복(정복이나 예복) 분류되고, 실전 시의 복장은 최대한 눈에 덜 띄는 단색(특히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 이를 '전투복'으로 분류하였으며, 영국군의 카키색 육상 전투복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전투복은 이전과는 달리 전장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며 위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단색 전투복도 효과가 미흡함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위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연의 색상에 맞는 얼룩무늬 패턴을 전투복이 도입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³⁾

2. 위장 패턴의 개요와 역사

위장 패턴은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개인, 무기, 시설, 의복을 지형이나 자연환경에 맞추어 식물(나뭇잎, 풀, 이삭) 문양을 그리거나 위장망을 씌워 아군 보호를 목적으로 디자인된 패턴을 일컫는다. 군무기의 비약적인 발전은 은폐와 위장에 대한 필요와 요구를 강하게 견인하였으며, 이에 전장의 환경(사막, 도심, 우림, 산악, 설원)에 최적화된 색상이나 무늬를 활용한 위장 패턴 전투복이 출현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얼룩무늬 전투복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 나치 독일의 무장친위대였기 때문에 보수적인 군인과 시민들 사이에 많은 반발이 있었다. 다만, 특수부대나 국가 원수 경호부대 등은 독특한 무늬에 호감을 보였으며, 이에 위장복을 대거 받아들였다. 따라서 과거에 위장복은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는 실전적인 위장성 보다는 차별화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화력 신무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은폐와 위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착시현상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트 같은 픽셀 패턴이나 픽셀과 웨이브패턴의 장점을 조합한 A-TACS 같은 문양이 등장하고 있으며, ACU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투명 전투복이나 적외선에 감지되지 않는 기능성이 탁월한 다양한 전투복이 개발되고 있다.

III. 세계 각국 전투복의 지역별 위장 패턴

1. 지역별 전투복 위장 패턴의 실제

3) <https://namu.wiki/w/%EA%B5%B0%EB%B3%B5>

1.1. 아시아 지역의 위장 패턴의 실제

1.1.1. 중국

1949년 중국공산당은 본토를 대부분 장악하였다. 중국 군대는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으로 통칭되며, 육군 지상병력, 해군 또는 PLAN, 공군 또는 PLAAF, 포병 부대(PLA 전략 미사일 부대), 특수 부대를 포함한다. 인민해방군이 최초로 도입한 위장 패턴<그림1>은 연한 녹색 배경에 검은 색, 중간 갈색 및 이끼 녹색이 있는 DPM 위장 패턴이었으며, 1987년에는 우드랜드 위장 패턴이 채택되었고, 이는 2007년 픽셀화된 디자인이 소개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그림 1 초기 DPM패턴, 우드랜드 위장패턴 1. 2

현재는 2007년에 도입된 '유형T 07'의 픽셀화된 패턴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색과 갈색, 회녹색, 진한 녹색으로 구성되어있다.⁴⁾

1.1.2. 인도

인도 군대는 전통적인 육군, 해군, 공군, 해안 경비대, 전략군 코만도, 인도의 준 군사(PFI)를 포함한다. 인도 무장 부대의 대부분은 특정 형태의 위장 패턴을 활용하며, 군대 내의 일부 연대도 고유한 패턴을 사용한다. 인도 군의 표준 위장 패턴인 DPM (Disruptive Pattern Material)은 카키색 배경에 녹색과 갈색 야자 잎 모양이 겹치는 패턴으로, <그림2> '인디언 리프 패턴' 이라 불렸으나 동일 명칭인 영국의 DPM 패턴과는 관련성이 없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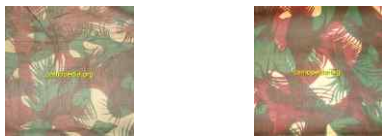


그림 2 인디언 리프 패턴'의 활용 예

2006년 인도 육군을 위해 'PC DPM' 패턴이라는 새로운 디자인이 등장했으며, 이 패턴은 카키 그린 바탕에 블랙, 브라운, 그린 색의 수평 띠가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4)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China>

5)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ndia>

1.1.3. 대한민국

한국의 최초 위장 패턴은 단색 배경에 여러 색상의 불규칙한 반점이 있는 미국의 M1942 스팟 패턴(Duck hunter Pattern) <그림4> 사용 이후에 일이다. 1960년대에 도입된 이 위장 패턴은 베트남전쟁 동안 한국군과 해병대가 착용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변형되었다.⁶⁾

1990년부터 한국군은 삼림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위장 패턴을 선호하여 이전에 착용한 올리브색 전투복(1948~1989년 착용) 대신 우드랜드 패턴과 유사한 미국의 m81을 도입했으며, 이 패턴은 2010년까지 한국군에 조달되었다.⁷⁾



그림 4 M1942, duck hunter 변형, 한국 군복의 woodland 패턴

2010년에는 검은색, 짙은 올리브 그린, 바다 녹색, 중간 갈색 및 카키색 색조를 사용한 '화강암 B'라고 불리는 픽셀화된 위장 패턴이 전투복 패턴으로 채택되었다.

1.1.4. 일본

일본은 2차 대전이후 전쟁을 선포 할 권리를 포기했으나 그럼에도 잘 훈련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1954년에 설립된 일본 자위대(Jieitai)는 육상(JGSDF), 해상(JMSDF), 항공(JASDF) 자위대로 구성되어있다, 최초의 현대적인 위장 패턴 <그림3>은 1975년 말~1976년 초에 착용된 Mk 1 위장복 유니폼에 쓰인 문양으로 옅은 녹색 바탕에 검은색, 갈색, 중간 초록색의 삼림 지대 모양을 가진 디자인이며, 이는 1988년 일본 항공 자위대 지상 방위 및 공군 보안 요원의 유니폼에 디자인에 기반이 되었다.



그림 3 초기 Mk 1 위장 피터, 1988 항공 자위대 위장 패턴

이후, 1991년 독일군의 flecktarn을 기반으로

6) https://camouflage.fandom.com/wiki/Duck_Hunter

7) https://camouflage.fandom.com/wiki/Duck_Hunter

카키색 배경에 검은색, 갈색 및 연두색 점이 특징인 새로운 위장 디자인이 육상자위대에 배포되었다. 이 패턴은 육상자위대의 고유 명칭에 근거하여 자위대(Jietai)라고도 불린다.⁸⁾

1.1.5. 터키

터키는 국방부 산하에 육군(Kara Kuvvetleri), 공군(Hava Kuvvetleri), 해군(Deniz Kuvvetleri)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무부 산하에 사령부(Jandarma Genel Komutanlığı)와 해안 경비대를 두고 있다. 대체로 터키의 위장 패턴은 미국 위장 패턴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초기 위장 패턴은 <그림5>처럼 미국의 M1942 패턴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후에는 미국의 M1948 ERDL 패턴과 미국 m81 우드랜드 패턴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림 5 M1942, M1948 ERDL, m81 우드랜드 패턴의 영향

픽셀화된 디자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2008년경 터키는 군 일부에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였고, 이는 터키 군대의 표준 전투 위장 패턴이 되었다. 카키색 바탕에 올리브 그린과 적갈색의 수평문양이 특징인 이 패턴은 터키과학기술연구위원회(TÜBİTAK)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모든 군인에게 착용되고 있다.⁹⁾

1.1.6. 이란

이란군은 육, 해, 공의 기존 병력과 이슬람 혁명가드(IRGC)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란에서 가장 오래된 위장 패턴은 붓 패턴으로 육군 특공대와 해군 특수 작전 부대에서 착용했다. <그림6> 연한 녹색 또는 카키색 배경에 짙은 녹색과 갈색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 브러시 스트로크 패턴으로 이후 20년간 다양하게 변형을 통해 계속 사용되었다.

현재 이란 육군은 사막지형 또는 건조지형에 적합한 DPM 위장 패턴을 착용하고 있다. 이 패턴은 원래 특수작전여단 23에서 쓰인 것으로 모래 배경에 짙은 갈색, 연한 올리브 그린

및 오렌지색의 문양이 특징이다.¹⁰⁾



그림 6 이란의 수직 브러시 패턴의 다양한 활용

1.1.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¹¹⁾ 1949년 인도네시아 독립 당시, 네덜란드 군이 보유한 미국의 M1942 스팟 패턴의 원단과 유니폼이 상당 부분 인도네시아 군에 입수되었고, 1960년부터는 미국산과는 다른 염료의 가벼운 원단을 사용해 현지에서 제작된 M1942 패턴 원단 <그림7>이 등장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특수부대에 지급되었으나 70년대에는 일부 보병부대도 이를 착용했다. 1984년 육군 장군 베니 모어 다니(Benny Moerdani)는 군대 전체에 영국식 DPM 위장 패턴을 표준화하도록 지시하였고¹²⁾, 이는 인도네시아 군대(TNI-AD)에 표준 위장 유니폼이 되었다.¹³⁾



그림 7 네덜란드 군의 M1942, 현지 생산된 M1942 패턴

1.1.8. 이스라엘

이스라엘군은 1948년 2차 대전 후 영구적인 유대인 고국을 방어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과의 군사원조와 교류를 통해 군사 강국이 되었다. IDF의 표준 전투복은 올리브 그린색이었으며, 위장 제복은 필요에 따라 여러 부대에서 수시로 채택되었을 뿐 표준화는 되지 않았다. IDF의 초기 위장복은 3차 중동전쟁 기간 프랑스가 기증한 유니폼이 공수 부대에 의해 착용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제작한 전투 유니폼이 오랫동안 착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IDF '유니버설' 시리즈 패턴 <그림8>이 IDF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것은

10)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ran>

11) https://en.wikipedia.org/wiki/Indonesian_Army

12) Ken Conboy.(2008)), Elite: the Special Forces of Indonesia 1950-2008 (Equinox Pub, Jakarta, p 6

13)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ndonesia>

8)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Japan>

9)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Turkey>

질감이 있는 합성섬유의 매쉬 소재에 얼룩무늬가 인쇄된 형태로 헬멧 넷에 처음 활용되었고, 이후 작업복과 바지, OTV커버 및 마스크로 구성된 유니폼으로도 사용되었으나, IDF 전체에 지급되지는 않았다.¹⁴⁾



그림 8 프랑스가 기증한 도마뱀 위장복과 IDF '유니버설'시리즈

1.1.9.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영국령의 인도 국가였으나 1956년에 공화국이 되었고, 지역 갈등에 휘말렸다. 파키스탄은 방대한 섬유생산국으로 자체 군복을 생산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다. 파키스탄의 오래된 위장 패턴은 영국 3색 브러시 스트로크 디자인 <그림9>의 복사본과 유사하다.



그림 9 파키스탄과 영국의 브러시 스트로크 패턴

2012년 말에 등장한 육군복의 패턴은 반 픽셀화된 버전의 사막 패턴이 채택되었다.¹⁵⁾

1.1.10. 북한

북한군의 초기 위장 패턴은 소련의 M1944 TTsMKK 3색 분산패턴 <그림10>으로 1960년대와 70년대에 일부 부대에서 착용되었다. 북한 군복은 위장 패턴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2017년 열병식을 통해 육군과 전략군, 특수작전군에 위장 패턴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¹⁷⁾ 우드랜드(woodland pattern) 패턴 스타일에 각 부대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활용됨을 알 수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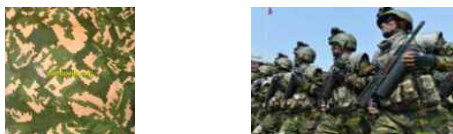


그림 10 M1944 TTsMKK 분산패턴과 우드랜드 위장 패턴의 군복

14)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srael>

15)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Pakistan>

16) <https://news.v.daum.net/v/20170418140605791>

17) <https://www.youtube.com/watch?v=8Dl4-JTTBfc>

18) <https://news.v.daum.net/v/20170417114106020>

1.1.11. 베트남

베트남은 한때 프랑스 인도차이나의 일부로 여겨지던 지역으로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점령, 종전 후 프랑스의 재점령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10년간의 전쟁을 끝으로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분쟁은 종료되었다. 남베트남에서의 군사 유니폼 생산은 주로 Quân-Nhu 군사 의류 생산센터에서 운영되었으며, 1954년에는 모든 군대를 위한 섬유 및 유니폼을 제작했다.¹⁹⁾

우드랜드 스타일 위장 무늬는 2007년 베트남 인민군(VPA: Vietnam People's Army) K07에서 처음 채택되었고, 이후 현대적인 유니폼으로 인쇄되었다. 종종 '라임 우드랜드'라는 별명을 가진 이 패턴은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갈색 및 녹색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⁰⁾

1.1.12. 대만

대만의 타이거 스트라이프 위장 디자인은 1979년 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중화민국(ROC) 국군에 의해 착용되었다. ROC 해병대를 위한 최초의 완전 문서화 된 호랑이 패턴은 초기에 매우 딱딱한 직물에 인쇄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료, 직물, 스타일이 대폭 개선되었다. <그림11>은 초기의 호랑이 줄무늬 패턴으로 제조방식과 직물유형에 따라 약간의 색상 차이가 있으며,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형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에 대만 국방부는 픽셀화된 위장 패턴을 채택하였다.²¹⁾



그림 11 초기 호랑이 줄무늬, 해군과 공군의 호랑이줄무늬 패턴

1.1.13.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군대는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SANG), 사우디 왕립 경비대, 비상 부대(테러 방지지부), 사우디 특수부대 및 국경 수비대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과의 유대관계로 초기 위장 패턴의 일부는 영국 육군과 유사하며,

19) Shelby Stanton.(1989), US Army Uniforms of the Vietnam War, Stackpole Books, Harrisburg, PA, p. 69

20) https://en.wikipedia.org/wiki/People%27s_Army_of_Vietnam

21)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Taiwan>

<그림12>와 같이 영국에서 개발된 사막 DPM 디자인의 파생 스타일이 초기패턴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림 12 사우디 위장 패턴과 영국의 DPM (P60) 패턴

북미와 다수의 유럽 국가들의 행보와 발맞춰 몇 가지 새로운 디지털 또는 픽셀화된 위장 디자인이 도입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방위군(SANG)에 먼저 적용되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쿠웨이트와 UAE가 착용하는 디지털 패턴과 유사성을 보인다.²²⁾

1.1.14. 태국

태국은 왕립군, 왕립공군, 왕립해군, 왕립해병대, 국경 안보 및 반란군 작전을 담당하는 준군사적 단체인 국경 순찰대가 있다. 베트남 전쟁 후 위장복을 생산해 왔으며, 1970년대와 80년대에 동남아시아의 주요 군사 직물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위장복과 유니폼을 생산하는 주요국임에도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이 다양한 위장 패턴을 자국 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부분 태국 군의 위장 패턴은 호랑이 줄무늬, 잎, 숲 패턴이 주로 사용되었다.

2008년 태국 왕립육군은 오래 지속된 잎 패턴에 동일한 기본 색채를 통합한 픽셀화된 패턴디자인으로 대체했다.²³⁾

1.2. 아메리카 지역 위장 패턴의 실제

1.2.1. 미국

미군에 의해 사용된 군사용 위장 패턴의 출발은 1차 대전 시기로 영국과 프랑스처럼 정찰요원 및 저격병과 같이 국경지대에 배치된 군인을 대상으로 수많은 설계 실험을 거쳐 패턴을 개발하였다. 이후, 위장 패턴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1942년이며, 태평양전쟁 때, 정글용 위장 유니폼 제작을 위해 맥아더(MacArthur) 장군의 요청으로 노벨(Norvell Gillespie)에 의해 설계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패턴은 ‘Scorpion W2’

(공식명칭: Operational Camouflage Pattern)이며, 2014년 7월 멀티캠의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교체되어 <그림13>, 2015년부터 미육군 전투복(ACU)으로 지급되었다.²⁴⁾ OCP는 디자인 면에 있어서 멀티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멀티캠 디자인에 쓰인 수직선 무늬는 없고 배경색인 연한 녹색이 연한 갈색으로 변한 것이 특징이다. OCP는 8가지 색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음영이 약간 변경되었다.²⁵⁾



그림 13 ‘멀티캠’ 패턴과 ‘스콜피온 W2’ 패턴

1.2.2. 브라질

브라질 군대는 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육군(Exército), 해군(Marinha), 공군(Forças Aérea)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 육군의 최초 위장 패턴은 1967년에 도입되었고, 또한 <그림14>와 같이 다양한 도마뱀 패턴이 브라질 군대를 위해 개발되었다.

브라질 육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마뱀 패턴은 밝은 녹색 바탕에 짙은 녹색과 자주색의 세로 줄무늬가 특징이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착용되어 다양한 변형 패턴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²⁶⁾



그림 14 최초 위장 패턴, 초기 육군용, 해군용 도마뱀 패턴

1.2.3. 캐나다

캐나다 최초의 위장복 사용은 2차 대전 시기이며, 캐나다 낙하산 대대는 영국제 Denison 작업복의 ‘브러쉬 스트로크’ 패턴을 착용하였으나 전쟁 후 재고가 고갈된 뒤에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토착화된 버전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북극이나 눈 덮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수 서비스 부대원 및 기타 캐나다 군대 요원이 착용한 흰색 외투를 제외하고, 1970년대 중반

22)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Saudi_Arabia

23)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Thailand>

24) <https://namu.wiki>

25)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USA>

26)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Brazil>

까지 캐나다 군은 위장복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표준 전투 제복은 오랫동안 올리브 녹색으로 유지되었으며, 1996년에 처음 도입되어 캐나다 표준 전투복에 사용된 Canadian Temperate Weight CADPAT(TW), 픽셀화된 패턴을 통합한 디지털 위장 패턴은 캐나다 군의 표준 전투복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⁷⁾

1.3. 유럽 지역의 위장 패턴의 실제

1.3.1. 러시아

소비에트 육군은 1937년 초 위장 패턴에 대하여 실험해 왔으며, 그 첫 제복은 겨울용 흰색 오버 슈트였다. 1938년까지 위장 패턴은 낙하산이나 특수 요원의 군복에 사용되었다. 잎과 나뭇가지를 모방한 패턴과 ‘계단 단계’ 테두리가 있는 큰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이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적용되었다. 전시에 위장 패턴은 모두 대량 생산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다. 최초 대량생산한 위장 제복은 연한 카키색 바탕에 큰 적갈색 아메바 모양이 특징인 MKK였으며, 이는 <그림15> 일명 ‘amoeba’ 패턴으로도 불렸다. 1938년에 도입된 MKK는 2차 대전 동안 엔지니어, 저격수, 공군, 전진 포병관측소, 정찰부대에서 쓰였고, 전쟁 후 동독에서 파생패턴이 제작되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민주화, 시장 및 무역 자유화를 포함하여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다른 구소련 국가들과 달리 소련의 위장 군복을 이후 몇 년간 더 사용하였다. 러시아는 위장 디자인 측면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1991년 이래로 다양하고 독특한 패턴을 개발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및 핀란드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된 수많은 위장 디자인을 복제했다. 1990 3-TsV 또는 VSR 패턴은 1994년까지 널리 보급되지 않았으나 러시아 군사 요원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발행된 최초의 위장 패턴이 되었다.²⁸⁾

2008년에는 식물 패턴을 대체하기 위한 패턴으로 Tsifra, Tetris 또는 ‘디지털 플로라’이라고 불리는 픽셀화 위장 디자인 EMR이 도입되었으며, 몇 가지 변형이 만들어졌다. 흔한 형태는 옅은 녹색 배경에 검정색, 적갈색, 엷

록소색의 작은 픽셀을 포함하는 디자인으로 2011년 전면적으로 채택되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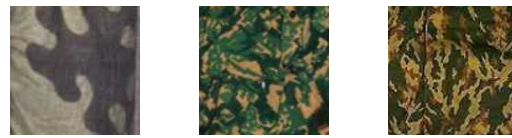


그림 15 amoeba, TTsMKK, 3-TsV 패턴

1.3.2. 프랑스

1차 대전 중 프랑스는 유진 코빈(Eugene Corbin)의 지시 하에 육군 위장부서에서 얼룩, 반점, 줄무늬 등 수제 위장 패턴을 실험했다.

2차 대전 시 프랑스 특공대 부대는 영국 및 다른 연합 공수 부대와 공통으로 ‘브러쉬 스트로크’ 위장 패턴 Denison을 사용했고, 1951년 영국의 브러쉬 스트로크에서 영향을 받아 그들만의 고유한 위장 제복(tenue de léopard:표범 제복)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흔하게 사용된 패턴 중 하나는 줄무늬의 붓질이 특징인 <그림 16> 일명 ‘도마뱀 패턴’으로 이 용어는 알제리 전쟁 동안 이 패턴을 착용한 낙하산병에게 주어진 별명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표범 패턴’은 1951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생산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많은 군대와 동일하게 무연 올리브 그린을 착용했다.³⁰⁾



그림 16 도마뱀 (lizard) 패턴의 변형

199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군은 위장복을 표준 제복화 하였으며, 1991년 프랑스 정부는 위장복 착용을 도입하였다. 1990년경에 소개된 3색 사막 패턴은 <그림17> 일명 ‘Daguet (사막의 폭풍-프랑스)’ 패턴으로 모래 색 바탕에 갈색과 황갈색의 희소한 가로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 군대의 사막 유니폼 패턴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프랑스 군은 미국 m81 woodland 패턴과 채색이 유사하나 더 두껍고 무거운 프렌치 스트라이프 패턴이 특징인 현재의 위장 패턴을 채택하였다.³¹⁾³²⁾

29)

<https://www.worthpoint.com/worthopedia/russian-soviet-army-vs-schofield-tsv-502336985>

30)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France>

31) W. Palincx.(2002), Camouflage Uniforms of the German

27)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Canada>

28) <https://namu.wiki/w/군복/러시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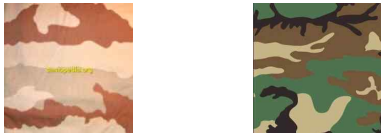


그림 17 Daguet 사막 패턴, m81 woodland 패턴

1.3.3. 영국

1차 대전 당시 영국군은 연한 녹색바탕에 흰색과 진한 녹색얼룩으로 핸드 드로잉한 위장 패턴을 저격수의 복장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18> 이후 대량생산된 위장 아이템 중 하나는 ‘Cape, Anti-Gas, No.1, Camouflaged’로 이는 가스공격에 대비한 대형방호복으로서 1930년에 설계된 것이었다. 무릎길이의 카키색 또는 올리브 녹색 바탕에 큰 갈색 얼룩의 패턴으로 면 원단에 아마씨 오일을 도포하여 발수성을 높였다.

1941년 영국군에 의해 개발된 Denison smock 위장 패턴의 작업복은 카키색 면섬유로 제작되었으며, 넓은 녹색 및 갈색 줄무늬의 술질 문양이 특징이다. 대형 브러시를 사용하여 손으로 채색한 초기 작업복은 염료 작업과 패턴제작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존재했다.³³⁾ 1942년에 소개된 ‘Windproof’ 패턴은 Denison의 브러시 스트로크 변형이라 볼 수 있다.



그림 18 초기 저격수 위장 패턴, Cape Anti-Gas, Denison 패턴

1960년대 영국 국방성은 1960 DPM (Disruptive Pattern Material)을 개발했으며, 이는 Denison과 더불어 <그림19>와 같이 각국에서 널리 차용되었던 패턴 중에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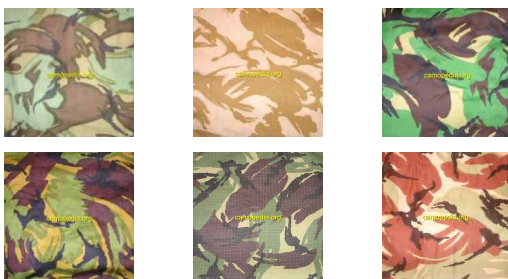


그림 19 p60, 사막 버전, 캐나다, 인도네시아, 오만, 필리핀 DPM

표준 DPM 패턴은 온대기후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카키색 또는 황갈색 배경에 검은 색, 갈색 및 밝은 녹색으로 구성되었으며, 열대와 사막 패턴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형이 있다.³⁴⁾³⁵⁾ 2010년부터 영국 육군에 도입된 다중 지형 패턴(Multi Terrain Pattern)은 아프리카니스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지형에서의 위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Crye Multicam과 전통적인 DPM이 혼합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³⁶⁾

1.3.4. 독일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미국은 20세기 초반 전장에서 위장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예술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했다. 1차 대전 후, 독일은 위장 패턴을 대량 생산체제로 도입하고 군용 차량에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독일은 2차 대전 동안 위장 디자인을 가장 많이 개발하고 사용한 국가이며, 다른 나라의 위장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위장 패턴은 세계대전을 전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을 위해 개발된 최초 패턴 <그림 20>은 1931경년에 도입된 Buntfarbendruck 31이다. 이는 1935년경 Heeres-Splitter muster³¹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Wehrmacht Sumpfmuster⁴⁴, Waffen-SS Platanenmuster 패턴은 1936년에 제작되어 1944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패턴은 여름과 가을에 뒤집어 착용할 수 있었으며, 헬멧 덮개, 작업복 등에 활용되었다.



그림 20 Buntfarbendruck 31, Platanenmuster, Palmenmuster, Eichenlaubmuster, Erbsenmuster, Leibernmuster 위장 패턴

Wehrmacht, Schiffer Publishing Ltd, Atglen PA p.265-266
 32) D. Peterson.(1995), Wehrmacht Camouflage Uniforms, Windrow & Greene Ltd, London, p.30
 33)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Denison_smock

34) https://en.wikipedia.org/wiki/Uniforms_of_the_British_Army
 35) <https://namu.wiki/w/%EA%B5%B0%EB%B3%B5/%EC%98%81%EA%B5%AD%EA%B5%B0>
 36) https://en.wikipedia.org/wiki/Multi-Terrain_Pattern

Waffen-SS Palmenmuster 패턴은 작업복 및 헬멧 커버에 사용되었으며, 1940~42년에 생산되어 소련 침공 시, 널리 활용되었다. 1941~45년에 사용되었던 Waffen-SS Eichenlaubmuster, 44년에 고안된 Waffen-SS Erbsenmuster 또는 ‘완두콩 패턴’이 있다. Leibermuster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개발되어 1945년 2월부터 독일군에게 지급된 최종의 위장 패턴이었다.³⁷⁾

종전 이후, <그림 21> Splittermuster 56 (splinter pattern)은 Bundeswehr의 범용 유니폼으로서 Wehrmacht의 특성을 유지했지만 눈에 띄는 흰색 패치로 전시 디자인과는 구별된다. 최초의 현장실험(Truppenversuch 76)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패턴은 Flecktarnmuster B였으며, 즉각적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89년 이후 패턴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표준 전투 패턴으로 소개되었다. 공식명칭은 독일연방군 5색 위장 패턴(Fünf Farben Tarndruck der Bundeswehr)으로 Flecktarn은 다양한 유니폼, 야전 장비와 함께 독일군의 표준 전투 유니폼 패턴으로 남아 있으며, Wüstentarndruck과 같은 사막 위장의 패턴으로 변형되었다.



그림 21 Splittermuster, Flecktarnmuster B, Wüstentarndruck

독일 Flecktarn 패턴은 덴마크, 일본, 폴란드, 중국, 벨기에와 같은 국가에서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패턴으로 파생 디자인이 나왔으며, 독일에서도 다양한 열대 및 사막 패턴으로 변형되었다. 디지털 또는 픽셀화 위장 디자인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lecktarn 패턴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다.³⁸⁾

1.3.5. 이탈리아

1차 대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위장 패턴을 실험했지만, 이탈리아는 군대에 배포하기 위해 위장복을 대량생산한 유일한 국가였다. 최초로 대량생산된 위장 패턴 <그림22> M1929

Telo Mimetico는 2차 대전 내내 낙하산 부대와 다른 이탈리아 병사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으며, 1943년 이탈리아의 항복으로 M1929 'Telo Mimetico' 위장복의 막대한 물량이 독일군에게 넘어갔고, 이러한 배경에 의해 종전 무렵에는 독일 육군에 의해 활용되었다.³⁹⁾ 냉전 시대, NATO의 관례에 따라 이탈리아 군대의 대다수는 위장복 대신 진한 올리브색 또는 단색 유니폼을 착용했다.

2004년부터 이탈리아는 현대 전투원의 요구를 재평가하고 해병대를 제외한 모든 군인의 위장 패턴을 카키 바탕에 초콜릿 갈색, 황갈색, 올리브 그린의 얼룩덜룩한 식물패턴 (mimetico Vegetata) 시리즈로 교체했으며, 이러한 패턴은 육군 및 공군에 적용되었다.⁴⁰⁾



그림 22 초기 telo mimetico와 독일 telo mimetico

1.3.6. 스페인

1959년에서 1960년 사이에 도입된 m59 rocoso(rocky pattern) 위장 패턴 <그림 23>은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이 사용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일부 품목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패턴은 황백색 바탕에 검은 색과 반투명한 붉은 색과 올리브색 녹색의 아메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옅은 흰색 반점이 특징이며, 속칭 ‘스페인의 갈색 아메바’로 알려져 있다. 또한 m60 boscosos(woodland) 위장 패턴은 일명 ‘스페인의 녹색 아메바’로 불리고 있다.

2002년에 표준 패턴은 ‘잎’(leaf) 패턴에서 약간 더 어두운 올리브색으로 변화되었으며, 해병대를 제외한 전 군대에 채택되었다.⁴¹⁾



그림 23 m59 rocoso, m60 boscosos, leaf pattern

2009년 12월 스페인 육군은 이전의 리프 패

37)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Germany_\(Third_Reich\)](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Germany_(Third_Reich))

38)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Germany>

39) <https://www.iwm.org.uk/collections/item/object/30096198>

40)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taly>

41)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Spain>

턴을 대체하기 위한 두 개의 새로운 픽셀화된 패턴을 공개했다. 그러나 멀티캠 패턴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커다란 범주에서 파악할 때, 우드랜드 패턴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⁴²⁾

1.3.7. 폴란드

2차 대전 동안 폴란드는 영국을 지원했으며, 공수 여단은 주로 손으로 칠한 ‘브러쉬 스트로크’ 위장 패턴 Denison 낙하산을 포함하여 영국의 제복과 야전 장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영국과의 동맹관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1944년 소련의 영향을 받아 폴란드 공화국(1944-1990)이 되었다. 이후 ‘브러시’ 위장 디자인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디자인은 2차 대전 독일의 패턴과 연결되어 있거나 완전히 혁신적인 스타일로 전개되었다.

1990년 폴란드는 공화국이 되었으며, 새로운 폴란드 공화국에 처음 등장한 위장 디자인은 ‘대통령 삼림’이라고 불리는 wz93 Pantera <그림24> 였다. 이는 1970년대 개발한 ‘꽃잎’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디자인으로, 카키색 배경에 검은 색 붉은 갈색과 올리브 그린 아메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1993년 폴란드 군대의 위장 패턴이 되었다.⁴³⁾



그림 24 폴란드와 독일의 Splittermuster 패턴, 꽃잎 패턴

1.3.8. 그리스

그리스는 2차 대전 당시 그리스-이탈리아 전쟁(1940-41)에서는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을 물리쳤으며, 종전 후에는 30년 동안 내전이 있었다. 1967년~1974년까지 집권했던 군사정권이 전복된 후, 터키와 긴장 상태에 있다.

그리스는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 등의 위장 패턴 개발에 영향을 받았다. 1950년대에 개발된 프랑스의 ‘도마뱀 패턴’과 포르투갈어 M1963 ‘수직 도마뱀’ 패턴 <그림25>는 그리스 패턴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명 헬레닉 도마뱀 (Hellenic Lizard)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25 도마뱀, 수직도마뱀, USMC에서 영향 받은 위장 패턴

2012년에 처음 등장한 표준 헬레닉 도마뱀 패턴의 픽셀화된 버전은 육군 특수 부대와 해군 특수작전부대 요원에게 착용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전체 군대에 채택된 것은 아니다.⁴⁴⁾

1.3.9.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붕괴에 따른 군사 쿠데타로 1990년에 독립했다. 과거 소련의 통제 하에 유지되던 많은 섬유 및 군복을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다. 독특한 색감으로 주변 생산지와 차별성이 인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소련 공화국 중 유일하게 위장복을 그대로 유입하거나 디자인 복제 없이 자체 생산이 가능했다. 우크라이나가 제작한 최초의 위장 패턴은 소련이 디자인한 1988 TTsKO <그림26>의 변종이었으며, 2014년에 사막 픽셀 위장 패턴으로 변경되어 착용되고 있다. 이 디자인은 회색, 황갈색 및 모래 음영이 특징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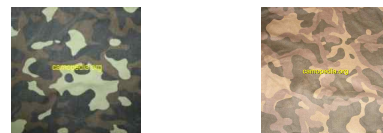


그림 26 소련 TTsKO 패턴과 TTsKO의 변종 패턴

1.3.10. 체코

2차 대전 후반에 위장 직물 인쇄 기계는 체코슬로바키아로 옮겨져 계속 생산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최초의 위장 직물 <그림27>은 독일 Wehrmacht ‘Sumpfmuster’ (marsh) 패턴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원본을 기초로 수정된 모델을 활용하였다. 1948년에는 라임 그린 바탕에 미 육군이 개발한 ERDL 패턴에 영향을 받아 ‘리프’ 패턴이 만들어졌다.



그림 27 ‘체코의 초기 위장 패턴과 독일의 늪 패턴 (Sumpfmuster)

42) <http://soldiersystems.net/2010/03/09/new-spanish-camo/>

43)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Poland>

44)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Greece>

45)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Ukraine>

1950년대에 독일과 이탈리아 디자인에서 벗어나 1980년대 중반에는 새로운 위장 디자인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잎 모양에 기초한 연한 녹색 바탕에 검정, 회녹색, 올리브 그린인 특징인 ERDL패턴 Vz <그림28>이 공식적인 위장 패턴으로 지정되었다.⁴⁶⁾



그림 28 체코의 리프 패턴과 미군의 ERDL 패턴

1.4. 아프리카 지역의 위장 패턴의 실제

1.4.1. 이집트

이집트에서 생산된 초기 위장 패턴 중 하나는 ‘바위’ 패턴(모래 패턴과 구별하기 위한 명칭)으로 <그림29>, 대략 1956년 즈음에 등장하였고, 이 디자인은 독일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집트 버전은 일명 ‘Egyptian Plane Tree’ 패턴으로 불리며 1990년대까지 패턴 생산이 유지되었다.

2011~2012년경, 일부 이집트 부대에서는 미국 삼색 사막 위장 패턴의 복사본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전반적인 디자인은 미국 패턴에 기반하였으나 특정 모양과 색상은 미국 모델과 다름을 알 수 있다.⁴⁷⁾



그림 29 rocks patter, 미국 / 이집트 tricolor desert pattern

1.4.2. 알제리

프랑스의 통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알제리 전쟁은 1954년에 FLN(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에 의해 시작되었다. 전쟁은 주로 게릴라전이었지만 프랑스는 9년간의 전쟁 끝에 궁극적으로 항복했다. 알제리는 1963년에 독립을 했으며,⁴⁸⁾ 1991년에 내전이 다시 발발했고 2002년 종전했다.

독립 10년 동안 알제리 무장 세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일부 부대는 1970년대 또는 1980년대 초, 스페인 로코소

위장 패턴 <그림 30>이 쓰였다는 증거가 있다. 이후 도마뱀 패턴의 변형이 나타났고, 영국이 개발한 사막 DPM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⁴⁹⁾



그림 30 스페인 rocoso, 알제리 rocoso변형, 알제리 도마뱀 패턴

1.5. 오세아니아 지역의 위장 패턴의 실제

1.5.1. 호주

호주는 남태평양 지역의 군사강국으로 2차 대전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경험으로 전진방어 개념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튼튼하며, 유럽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외교적 이권과 이해관계로 참전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군(AMF)을 위해 제작된 최초의 위장 디자인은 베트남 전쟁 중에 등장했으며, 2차 대전 중에 일부 공수 부대와 특공대 부대를 지휘했지만, 어떤 종류의 위장 제복을 입었다는 증거는 없다. 1982~83년에 처음으로 호주 DCP(Disruptive Camouflage Pattern) 위장 패턴 <그림 31>이 나왔으며, 공식적인 유니폼은 DPCU (Disruptive Pattern Combat Uniform)로 알려져 있다. 제조업체와 직물에 따라 약간의 색상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키색 배경에 주황색, 갈색, 진한 올리브, 라임 녹색 점이 특징이며, AUSCAM, 토끼캠, OzCam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그림 31 초기 위장 패턴과 AUSCAM

2014년 중반 호주군은 DPCU(Disruptive Pattern Camouflage Uniform)와 AMP OCU(Austracam Multicam Pattern Operational Combat Uniform)를 대체 할 새로운 위장 제복을 공식적으로 채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초기 크라이(Crye)에서 디자인한 호주 멀티캠 패턴과 혼합된 형식의 수정 패턴이며, 기존 DPCU의

46)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Czech_Republic

47)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Egypt>

48) https://en.wikipedia.org/wiki/Egyptian_Army_Uniform

49)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Algeria>

6색 팔레트에 한 색상을 추가한 것으로, 공식 명칭을 AMC라고하며, AMCU(Australian Multicam Camouflage Uniform)에 2019년까지 통합 적용키로 하였다.

3.2. 지역별 전투복 위장 패턴 변화의 경향










전투복에 활용된 위장 패턴은 적군의 감시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장비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군사적인 기만의 한 형태로 지역별 전투복의 위장 패턴 <표 1>은 은폐와 위장의 기만성을 의복에 도입함으로써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방편이며, 이러한 노력은 패턴 디자인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앞서 지역별 전투복 위장 패턴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재 전투복 위장 패턴의 변화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픽셀화, 디지털 패턴화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중국, 터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픽셀화된 디지털 패턴이 전투복의 위장 패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 디지털 패턴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위장 패턴의 픽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픽셀화된 위장 패턴의 장점은 작은 픽셀무늬가 발생시키는 착시효과에 있는데, 이러한 착시효과는 무늬가 작거나 가는 경우, 배경과 줄무늬가 혼합되어 보이거나 색의 채도나 명도가 본래와 다르게 지각됨으로서 시각적으로 착시효과를 유발하는데 있다. 또한 디지털 픽셀문양은 야간 적외선 탐지 장비로 관측 시 탐지 자체의 노이즈와 구분이 힘들다는 장점이 있으며, 산림, 산악지역에서의 전투는 물론 도심과 같은 시가지 전투에서도 위장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앞선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현대 군복의 변화는 선진 군사 강국이 개발한 최신 스타일을 자국의 위장 패턴에 반영하고자하는 의도가 각 국가마다 있어 픽셀화된 디지털 패턴의 관심은 새로운 첨단 패턴이 제시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세계 전투복 위장 패턴은 유형적, 맥락적 유사성을 띄고 변화한다. 이는 전투복에 활용되는 위장 패턴이 일반인에게 거의 비

슷하게 보이는 이유와도 연관성이 있다. 다시 말해, 어느 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위장 패턴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활용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위장 패턴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군사 강대국의 선진적인 패턴의 결과물들이 오늘날에도 전투복 위장 패턴 디자인의 원천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위장 패턴은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위장 패턴 디자인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은폐·위장에 주목한 합목적 기능성에 중심을 두고 변화한다. 결국 은폐나 위장은 지역의 기후, 지형 및 생태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환경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위장 패턴은 환경적 변수 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은폐·위장의 합목적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시험단계를 거쳐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로 하나의 위장 패턴이 개발되어 착용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험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의 보완은 결국 은폐·위장의 합목적 기능성 추구에 있으며, 패턴의 원천으로 채택되는 디자인 역시 그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은폐와 위장의 목적성을 단순하고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의 이점이 원천디자인을 차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위장 패턴디자인에 있어서 합목적 기능성의 추구는 실질적인 면에서 의미가 크다. 넷째, 위장 패턴 디자인은 자국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토착화의 단계를 거치며 변화한다. 앞서 위장 패턴 디자인의 유사성에서 언급한 바처럼 세계 각 지역의 위장 패턴은 유사해 보이는 패턴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유사해 보이는 패턴이 모두 동일하다고는 표현할 수 없다. 공통적인 유형으로 그룹 지을 수 있는 위장 패턴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각기 다른 차별성을 지니며, 이처럼 각 국가마다 특징이 다른 이유는 자국만의 독특성의 추구임과 동시에 각기 다른 지형과 환경 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위장 패턴 디자인은 시대적, 역사적 관련성을 지니고 변화한다. 디자인 원천으로서 채택된 디자인은 목적성이 아니면 역사적 관련성에 의거하여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즉, 하나의 위장 패턴이 사용되기까지는 반드시 그 패턴이 활용될 수밖에 없었던 국가와 국가 간의 시기적, 역사적 상황의 특별한 연관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여섯째, 위장 패턴 디자인은 자국의 차별성을 추구하며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유형적으로 유사한 패턴일 지라도 각각의 패턴에는 그 국가만의 독특한 문양의 규칙이나 형태와 색상의 미묘한 변화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들 사이의 차이점은 각 국의 패턴을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표 1 지역별 전투복 위장 패턴의 실제

아시아					
	중국 픽셀화 패턴	인도 PC DPM 패턴	대한민국 픽셀 패턴	일본 dots 패턴	터키 픽셀 패턴
					
	이란 DTM 패턴	인도네시아 DPM 패턴	이스라엘 사막 패턴	파키스탄 반 픽셀 패턴	북한 우드랜드 패턴
					
	베트남 우드랜드 패턴	대만 픽셀화 패턴	사우디 디지털 패턴	태국 픽셀화 패턴	
아메리카					
	미국 Scorpion W2 패턴	브라질 도마뱀 패턴	캐나다 디지털 패턴		
					
유럽	러시아 픽셀화 패턴	프랑스 우드랜드 패턴	영국 멀티캠 패턴	독일 Flecktarn 패턴	이탈리 픽셀 패턴
					
	스페인 우드랜드 변형패턴	폴란드 DPM 패턴	그리스 도마뱀 패턴	우크라이나 픽셀 패턴	체코 리프 패턴
					
아프리카	이집트 삼색 사막패턴	알제리 DPM 패턴			호주 멀티캠 패턴

4. 결론

최근 군복에서 쓰이는 위장 패턴이 의상과 소품,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패턴으로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투복의 위장 패턴은 위장과 은폐의 기능성을 군복에 적용한 것이며, 이는 오늘날 군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세계 각국은 21세기 미래전장 환경에 부응한 저마다의 위장 패턴 전투복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군사적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30위권 내의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첫째, 각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투복 위장 패턴디자인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오늘날 각국의 위장 패턴에서 나타나는 변화발전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세계 전투복 위장 패턴은 픽셀화, 디지털 패턴화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세계 전투복 위장 패턴은 유형적, 맥락적 유사성을 띄고 변화한다. 셋째, 은폐·위장에 주목한 합목적 기능성에 중심을 두고 변화한다. 넷째, 위장 패턴 디자인은 자국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 토착화의 단계를 거치며 변화한다. 다섯째, 위장 패턴 디자인은 시대적, 역사적 관련성을 지니고 변화하며, 여섯째, 자국만의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특징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계 전투복 위장 패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과 변화발전의 경향 파악에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제언에 대한 내용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첫째, 군복 패턴디자인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세계적인 위장 패턴의 흐름과 특징을 조망할 수 있다. 둘째, 최근 패션디자인 트렌드로서 위장 패턴의 활용도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위장 패턴 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자료로서 패턴 개발 시에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세계 군복 패턴에서 활용되는 위장 패턴의 특징을 통해 향후 군복 위장 패턴 개발 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의 제언으로는 본 연구가 갖는 한계성에 관한 측면으로 세계 각 지역마다의 세

부적인 특수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을 한계로 들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을 세분화한 후속 연구를 통해 심화시켜갈 예정이다.

참고문헌

- Ken Conboy. (2008), Elite : the Special Forces of Indonesia 1950-2008,,Equinox Pub, Jakarta
- Shelby Stanton. (1989), US Army Uniforms of the Vietnam War, Stackpole Books, Harrisburg, PA
- W. Palinckx. (2002), Camouflage Uniforms of the German Wehrmacht, Schiffer Publishing Ltd, Atglen PA
- D Peterson. (1995), Wehrmacht Camouflage Uniforms, Windrow & Greene Ltd, London
- <https://namu.wiki/w/%EA%B5%B0%EB%B3%B5>
-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D%88%AC%EB%B3%B5>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China>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ndia>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Turkey>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Japan>
- https://camouflage.fandom.com/wiki/Duck_Hunter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ndonesia>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srael>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Pakistan>
- <https://news.v.daum.net/v/20170418140605791>
- <https://www.youtube.com/watch?v=8Dl4-JTTBfc>
- <https://news.v.daum.net/v/20170417114106020>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ran>
- https://en.wikipedia.org/wiki/Indonesian_Army
- https://en.wikipedia.org/wiki/People%27s_Army_of_Vietnam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Taiwan>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Saudi_Arabia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Thailand>
- <https://namu.wiki>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USA>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Brazil>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Canada>
- <https://namu.wiki/w/군복/러시아군>
- <https://www.worthpoint.com/worthopedia/russian-soviet-army-vsr-schofield-tsv-502336985>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Denison_smock
- https://en.wikipedia.org/wiki/Uniforms_of_the_British_Army
- <https://namu.wiki/w/%EA%B5%B0%EB%B3%B5/%EC%98%81%EA%B5%AD%EA%B5%B0>
- https://en.wikipedia.org/wiki/Multi-Terrain_Pattern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Germany>
- <https://www.iwm.org.uk/collections/item/object/30096198>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Italy>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Spain>
- <http://soldiersystems.net/2010/03/09/new-spanish-camo/>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Poland>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Greece>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Ukraine>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Czech_Republic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Egypt>
- https://en.wikipedia.org/wiki/Egyptian_Army_Uniform
- <https://camopedia.org/index.php?title=Algeria>

